

## 남편을 잃은 슬픔과 탄식의 가사, <명도자탄사>

박은빈\*

### 차 례

1. 머리말
2. <명도자탄사> 속의 슬픔과 탄식
3. 남편 윤씨의 죽음을 이해하는 태도
4. 맺음말

### | 국문초록 |

<명도자탄사>는 남편 윤씨의 열행을 칭송하는 행장과 함께 전승되어, 오랫동안 열녀의 노래로 알려지고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명도자탄사> 작품 자체를 살펴본다면 윤씨를 단순히 열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거침없이 토로하는 <명도자탄사>의 내용에서 시대적인 압박에 떠밀려서 죽음을 택한 순종적인 여성의 모습을 찾아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윤씨를 주입된 유교적 이념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죽음을 택하게 된 여성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유교적 이념관에 사로잡혀 적극적으로 열행을 수행하고자 하려고 모습으로 보려는 것 또한 옳지 않아 보인다. <명도자탄사> 내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던 작자가 이와는 대조적으로 작품 내에서 열행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명도자탄사>의 작품 자체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후대인들의 유교적 이념에 의해 덧붙여진 행장을 떼어놓고 작품 그 자체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열행에 대한 유교적 이념과 가치관 없이 작품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명도자탄사> 내에 드러나는 슬픔과 상실의 감정을 이해한다면 윤씨의 죽음에 대한 원인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드러난다. 윤씨는 정절을 지키

\* 전남대학교 박사 졸업

려 했다거나, 시대 상황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 죽음을 택한 것이 아니다. 윤씨는 남편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상실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남편을 따라 죽은 것이다. 윤씨의 죽음은 순절이 아니라 자살이며, 남편을 따라 죽어 절개를 지키고자 한 열행이 아니라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그와 함께 죽음의 길을 선택한 비극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핵심어 : 명도자탄사, 남원윤씨, 여성가사, 경기가사

## 1. 머리말

조선 시대의 여성들의 가사문학인 여성가사는 흔히 규방가사, 혹은 내방가사라는 이름으로 연구되어 왔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규방가사란 조선 후기 여성들이 창작과 전승의 주체가 된 문학으로, 주로 영남지방 일대를 위주로 유행 하였던 작품들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온 가사이다. 또한 이러한 규방가사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규방’이라는 조선 사회 속 여성의 공간에서 여성으로서 겪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을 주된 소재로 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규방가사의 내용으로는 여성이 혼인을 함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시집살이에 대한 고통을 탄식하거나 봉건적인 사회의 불합리함에 대하여 비판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여성으로서 반드시 해내야 할 의무와 지켜야 할 규범들을 다른 여성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있기도 하다.

전자의 경우 자탄가류 가사, 후자의 경우 계녀가류 가사로 분류가 되며, 이외에도 사친가류, 상사가류, 풍류가류 등 다양한 유형의 작품이 존재한다. 이러한 규방가사는 오랜 기간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그 모습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다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 때문에 규방가사에 대한 연구는 그 연구대상의 성격이 다소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즉, 영남지방 일대에서 주로 유행하였고, 규방이라는 여성 공간 내에서 여성담론을 다루고 있는 가사를 주된 연구 대상으로 다루는 것이다.

때문에 여성 작자의 입장에서 쓴 가사는 당연하게도 ‘규방가사’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그 체계화된 유형 안에서 읽어지고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 글에서 다룰 <명도자탄사>의 경우 일반적인 규방가사의 관점에서 연구하기엔 다소 개성적인 면이 크다. 때문에 이 가사를 규방가사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명도자탄사>는 영남지방보다는 주로 경기지방을 중심으로 향유되었던 작품이며, 또한 작품의 내용이 규방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성들의 보편적인 삶이 아닌 작자인 남원 윤씨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명도자탄사>를 여성가사라고 지칭하고 논지를 전개하도록 한다. 이는 규방가사보다는 보다 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규방가사의 작품을 모두 포괄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관점에서 쓰인 가사를 모두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명도자탄사>는 규방 공간 내에서 드러나는 여성담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 작자의 작품이며 여성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는 규방가사의 구체적인 정의와는 맞지 않으나 이러한 내용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며, 규방가사를 모두 포괄하는 여성가사의 관점에서 작품을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연구사를 살펴보면 <명도자탄사>는 이상보가 <명도자탄사>가 수록된 책 『哀從容』을 발굴하여 발표하고 <명도자탄사> 원문을 영인하여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학계에 소개되었다. 이상보는 <명도자탄사>를 “사대부 집안의 여성으로서 죽은 남편을 따라 스스로 운명을 같이하는 열부의 작품인 점에서 일찍이 국문학사상에 찾아볼 수 없던 슬픈 노래로 그 기교의 능숙함에 있어서도 매우 뛰어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sup>1)</sup> 뒤이어 진동혁도 『哀從容』 이본을 발굴하여 학계에 소개하였는데 진동혁은 『애종용』의 이본 존재 이유, <명도자탄사>를 산출시킨 사회적 배경, 공인 남원 윤씨의 가계와 생애, 남원 윤씨의 성

1) 이상보, 「명도자탄사 소고」, 『명지어문학』 8호, 명지어문학회, 1976.

품, <명도자탄사>의 문학적 가치와 분석 등에 관하여 고찰을 시도하였다.<sup>2)</sup> 한편, 오종각은 이전의 연구들이 작품의 외면적인 연구에 더 치중한 것이라고 말하며 작품의 내적인 면, 즉 <명도자탄사>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고찰로 어떠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가 또한 어떠한 것을 노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sup>3)</sup>

이렇게 열녀의 노래로 연구되던 <명도자탄사>는 후대에 이르러 조금 다른 관점으로 연구되게 된다. 박경주와 길진숙은 <명도자탄사>라는 작품이 일반적인 규방가사와 달리 작가가 명확하며 단 두 편뿐인 열녀의 가사 중 하나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박경주는 전의이씨의 <절명사>와 남원 윤씨의 <명도자탄사>를 '절명가사'라는 작품군으로 묶어 고찰하면서 작품에 반영된 순절의식에 대해 논하였다. 박경주는 '절명가사' 내에서 특히 남편에 대한 애절한 사랑이 강렬히 표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들의 순절이 유교 이념의 실천 의지가 사회적 압력이 아니라 남편에 대한 상실의 정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다.<sup>4)</sup>

한편 길진숙은 <명도자탄사>를 『애중용』에 수록된 행장과 비교·분석하며 <명도자탄사> 내에 드러난 남원 윤씨의 내면의식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따르면 행장에서 나타나는 남원 윤씨는 상을 당하고도 침착히 장례를 치룬 뒤 망설임 없이 자결을 감행한 전형적인 열녀로 형상화된 반면 가사작품인 <명도자탄사>에는 남원 윤씨의 심리적인 충격과 슬픔이 사실적으로 드러나 있어 행장에서는 볼 수 없는 남원 윤씨의 내면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의 이씨의 작품 <절명사>와의 비교를 통해 작자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것을 <명도자탄사>의 특징으로 꼽았다.<sup>5)</sup>

2) 진동혁, 「공인 남원윤씨의 「명도자탄사」 연구」, 『국어국문학』 91호, 국어국문학회, 1984.

3) 오종각, 「<명도자탄사>의 형태와 내용고찰」, 『도술어문』 2, 단국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986.

4) 박경주, 「18세기 절명가사에 나타난 사대부가 여성의 순절의식 연구: 『절명사』와 『명도자탄사』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28호, 2001.

5) 길진숙, 「<명도자탄사>의 내면의식과 자탄적 술회」, 『한국말글학』 제18집, 한국말글학회, 2001.

이와 같은 논의는 남원 윤씨를 단순히 유교적 이념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수동적으로 열행을 선택한 인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개인으로 인식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윤병용은 이러한 논의를 수용하여 남원 윤씨의 유서와 가사 <명도자탄사>를 대상으로 그에 반영된 열녀의 내면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작품의 의의를 재고하고자 하였다.<sup>6)</sup>

이상의 연구사를 살펴보았을 때 <명도자탄사>는 어느 정도의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규방가사의 일종으로 분류되기보다는 작품 그 자체의 개별적인 작품론에 주목하여 연구되고 있다.<sup>7)</sup>

이는 <명도자탄사>를 열녀의 노래로 이해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명도자탄사>의 작자인 남원 윤씨는 남편이 죽은 지 100일이 되는 날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가사 <명도자탄사>를 남겼다. 때문에 윤씨는 남편을 따라 죽은 열녀로 이름을 남겼으며 자연스럽게 <명도자탄사>는 열녀의 노래로 연구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열녀’라는 개념은 주로 사대부 남성애에 의해 요구되고 만들어진 개념이었으며, 여성들이 규방담론으로 이어지는 개념은 아니었다. 때문에 열녀로 알려진 윤씨의 <명도자탄사>는 규방가사의 일종으로 연구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명도자탄사>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작품 내에서 이러한 ‘烈’을 관찰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작품 내외적으로 알려진 정보 또한 남원 윤씨가 사회적인 ‘열’의 관념 때문에 목숨을 끊었는지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이 들게 만든다. 이에 이 글에서는 <명도자탄사>에서 드러나는 남원 윤씨의 슬픔과 탄식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남원 윤씨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것이 <명도자탄사> 내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6) 윤병용, 「남원 윤씨의 유서와 <명도자탄사>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40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20.

7) 다만 박경주의 논의에서만 유일하게 <명도자탄사>를 <절명사>와 함께 ‘절명가사’의 일종으로 묶고 이를 규방가사 안의 한 갈래로 보고자 하였다.

## 2. <명도자탄사> 속의 슬픔과 탄식

<명도자탄사>는 남원 윤씨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을 따라 자결하면서 남긴 가사작품으로 윤씨의 유서 9통과 함께 『哀從容』이라는 책으로 묶여서 전한다.

<명도자탄사>의 작자인 남원 윤씨는 연기현감을 지낸 윤상흠과 청풍 김씨의 딸인데, 순조 44년인 무자년(1786년) 11월 21일에 태어나 4세에 어머니를 여의고 이모인 남씨 부인에게 양육을 받다가 여덟 살에 본가로 돌아와 계모인 이씨를 섬겼다. 계모 이씨가 일찍이 병에 걸리자 윤씨가 곁에서 모시고 구호하는 것을 지극히 하였으며 상을 당하자 집상하기를 남자와 같이 하였다고 한다.

윤씨는 18세에 남편 한진구에게 시집을 갔는데 한씨의 가세가 청빈하여 향곡에 유락(流落)하여 생활하게 된다. 윤씨는 서울 화려한 데서 성장했으나 시집에 들어간 이후로는 방아짚는 일과 불 때는 일을 모두 몸소 하면서도 수고롭고 고생하는 빛이 없었으며, 시아버지가 홀아버로 병이 많으니 받들어 섬김에 효성을 극진히 하고, 상을 당하자 초종지절과 죽은 이 섬기는 예를 한결같이 산사람 섬기듯이 하니 집안의 이들이 감격하여 모두 효부로 칭하였다고 한다.

윤씨는 무남독녀로 태어났는바, 부친 윤상흠이 매마침 연기군수가 되어 윤씨를 데리고 갔는데, 남편인 한진구의 병보를 받고는 달려가 일 년이 넘도록 밤낮으로 두려워하고 근심하여 옷 띠를 풀지 않고 잠을 자지 않았으며, 약을 달이고 물 끓이는 것을 친히 하고, 남편의 병이 점차 더 위태로워지자 변을 맛보아서 달고 쓴 것을 살피고, 혹독한 추위에도 내의를 입지 않고 하늘에 빌며 자신이 대신 갈 것을 청하였으나 남편이 결국 죽게 된다.

이웃과 친척들이 곧고 절개 있는 윤씨의 평소 성품과 행실을 보고 따라 죽을 것을 염려하여 밤낮으로 간호했으나 오히려 몸소 바늘과 실을 잡아 재봉하고 염습하고 입관하는 장사 절차를 모두 친히 하고 후사하는 일과 살림살이 방법을 일일이 지휘하여 집안사람들을 안심시켰으며, 장사를 지낸 뒤에 윤씨의

친부가 와서 보고 비참함을 이기지 못하고 애통해하는 것을 도리어 위로하여 보냈다. 이에 친부가 두어 날을 묵고 위로하며 무마하고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서울에 도착하자 그 이튿날에 약을 먹고 죽으니 이는 남편이 죽은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sup>8)</sup>

윤씨는 자결 전에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손위동서, 시댁 당숙, 친정 당숙, 유모, 노비 점열 부부 등에게 보내는 9통의 유서와 <명도자탄사>를 남겼다. 윤씨가 자결하자 한씨가에서는 남원 윤씨의 행장을 기록하고 윤씨가 여러 사람에게 국문으로 남긴 유서를 한문으로 옮겨 쓰고 <명도자탄사> 또한 필사하여 『哀從容』이라는 한권의 책으로 엮었는데 이는 비교적 많은 이들에게 향유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학계에 알려진 것은 시가 당숙 후계본의 『哀從容』과 친가후손본인 『哀從容』 두 종류이나 이 외에도 여러 이본이 향유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의 행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에 남원 윤씨는 유교적 이념에 맞는 전형적인 열녀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평소 성품과 행실이 곧고 절개가 있었다는 서술을 보았을 때 윤씨는 유교적 이념과 정절을 지키기 위해 자결이라는 방식으로 자신의 절개를 지키고자 한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런데 <명도자탄사>의 작품 내용을 본다면 이러한 관점은 작품의 내용과는 전혀 맞지 않는, 편견에 갇힌 관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명도자탄사>에서 작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정절이나 자신의 행위에 대한 다짐의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의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명도자탄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는 서사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내면의식을 본격적으로 진술하는 본사, 가사를 지은 뜻을 밝히고 심경을 매듭짓는 결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본사의 내용은 다시 ‘섬돌’과 ‘안방’이라는 공간적 배경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sup>9)</sup> 이러한 구성에 따라서 작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 윤행임, 『대방세가언행록 : 국문번역』, 성동문화, 1993, 315~318쪽.

9) 박경주, 앞의 논문, 118~121쪽.

歲在辛酉요 節當季春이라  
 東君이 有情호니 곳곳마다 春意로다  
 烟光이 어린 곳의 杜鵑花 滿發호니  
 千峰萬樹의 가지가지 香氣로다  
 耽花蜂蝶 어즈럽고 百鳥和鳴 擾亂호다  
 景致도 조하 뵈고 物色도 새로애라  
 樂人은 乘興時요 愁人은 添悲時로다  
 嗚呼라 此何世요 今夕은 何夕고

서사에서 작자는 꽃피는 춘삼월의 계절에 두견화가 만발한 풍경과 꽃을 찾는 벌과 나비의 모습을 묘사하며 춘경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러한 도입부는 얼핏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묘사하는 내용을 예측하게 하지만 뒤이어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명도자탄사> 전체를 관통하는 슬픔의 정서와 이를 표출하는 탄식의 어조가 드러난다. 사방이 꽃이 만발하는 계절의 계절은 때가 때인 만큼 즐거운 이는 흥을 타는 때이나 근심하는 이에게는 슬픔이 더하는 때라는 서술 때문이다.

때는 어두운 저녁, 섬돌 앞에 홀로 서서 명월을 바라보는 작자는 자신의 평생에 대한 한탄을 늘어놓는다. 우연히 병을 얻은 작자의 남편은 일 년 동안을 병마로 고생하였으나 끝내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의 흐름이나 작자는 세상에 편작과 화타가 없는 탓이며, 자신의 정성이 천박하여 하늘과 귀신을 감동케 하지 못한 탓이라고 말하며 남편의 죽음에 대한 탄식을 늘어놓는다.

이는 곧 남편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허망함, 분노 등의 다양한 감정으로 바뀌어서 서술된다. 작자는 이 달과 날이 원수라는 표현으로 분노 섞인 슬픔을 드러내며, 따라 죽지 못한 슬픔, 떠나버린 이에 대한 허망함 등을 서술에서 드러내며 남편의 죽음에 대하여 온 힘을 다하여 슬퍼한다.

이러한 슬픔의 감정은 급기야 홀로 떠나버린 남편을 원망하는 서술로 이어지는데 이는 일반적인 원망의 감정이 아니라 슬픔을 기반으로 한 그리움의 마

음이 원망하는 듯한 어조로 표출된 것이다.

꿈의라도 견딜소나 半生恒言 虛事로다  
일일마다 날속였다 惝惝치 날속였다  
어디 가 다시 만나 속인 말 물어볼고  
날을 이리 속여시니 怒흥기가 怒호은가

작자는 남편이 반평생 동안 항상 하던 말을 들먹이며 이것이 모두 허사였으니 일일마다 끝끝내 자신을 속였다고 탄식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겉으로 보았을 때 얼핏 보면 남편을 향한 원망의 정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남편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의 정서가 담겨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품에서 언급하는 ‘半生恒言’의 내용은 작품 내에서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작자가 남편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고 자신을 속였다고 노여워하는 모습 등을 보았을 때, 평생을 함께 하자는 백년해로의 약속이 아닐까 추측해볼 수 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끝내 떠나버린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내면의식으로 깔려 있기에 작자는 남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신을 속였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작자는 남편에 대한 원망을 탄식의 형태로 드러내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王孫芳草는 年年히 도다오고  
春風桃李花는 네보던 빗치로디  
흔번 下直호고 地下로 도라간 후  
반갑다 다시 볼고 西時西節 지촉업시  
도라오디 生死兩代 回還節은 지촉업서 못오는가  
죽는節이 삼겨거든 사라올節 삼기쇼셔  
地下人間이 몇千疊인고  
消息이 막혀시니 기별이나 이실소나  
어디어디 머물란디 오날도 終日호고  
來日도 終日호니 무슨 길 이하도록

집의 올줄 이저는고 夢裡의 相逢호면  
 依然호 和色일쇄 글노 혜면 머잔케 머물느니  
 家率을 니즈신가 秋毫記念 아니시니

왕손방초는 해마다 돌아나며 봄바람에 피는 도리화는 예로부터 보던 빛과 같은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하세계로 돌아간 이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에 작자의 슬픔은 배가 된다. 지하로 가버린 이를 그리워하며 꿈속에서나마 상봉을 하면 전과 다름이 없는 화색에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나 남편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다. 이에 작자는 가솔들을 잇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원망의 대상을 보다 더 구체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면에서 남편은 실제로 가솔들을 잇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며, 남편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이다. 즉,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장애물 앞에서 넘쳐나는 슬픔과 그리움의 정서를 주체하지 못하고 이를 남편에 대한 원망과 탄식의 어조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원부사 형태의 시가에서 드러나는 남편을 향한 원망과는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부분이다. 원부사에서는 오지 않는 남편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탄식의 기반이 된다면 <명도자탄사>에서는 남편을 향한 그리움의 마음이 어찌할 바 모르는 장애물 앞에서 원망의 형태로 바뀌어서 드러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나타낸다.

남편의 죽음에 대한 탄식을 내뿜던 작자는 뒤이어 부부의 운명에 대한 탄식을 늘어놓는다. 다음은 작자가 부부의 운명에 대하여 탄식하는 부분이다.

世間의 無雙호니千古를 歷想호나  
 우리 夫婦호호 薄命이 또 잇는가  
 悠悠此恨이 하늘이 높고 바다히 옛도다  
 吾門이 衰運이기 如履薄氷호고 如臨深淵호여  
 不願功名富貴호고 不願子慶호고

願一享壽畀일너니 神明이 不察호고  
天遺禍殃 甚호실샤 生死兩地의 疊疊遺恨이  
내몸이 죽어져서白骨이 塵土된들  
츠마 어이 이즐소니 光陰이 迅速호여  
葬日이 다드르니靈柩를 붓드러  
窮地의 葬호오니 生則同禍를 못호여시니  
卽地의 죽어져서同穴이 나의 至願이라

작자와 남편은 서로가 부모를 일찍 여의고 함께 빈곤한 처지에 처했기에 삶에 임하기를 얇은 얼음을 밟듯이 하고 깊은 연못에 임하듯 조심하여 부귀와 공명을 원하지 않으며 자식의 경사스러움 또한 원하지 않고 함께 수를 누리기만을 원할 뿐이었다. 그러나 천지신명이 이를 살피지 않아 화를 내리니 작자의 입장에선 이에 대한 한이 뼈에 사무친다고 말하고 있다.

장사를 지낼 때에 작자는 그 자리에서 죽어져서 남편과 함께 묻히기를 바랐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홀로 남게 된다. 그리하여 홀로 생각하니 얼굴 모습과 말소리가 쟁쟁하고 떠난 이의 자취와 숨씨가 여기저기에 드러나 있어 잇을 길이 없다.

방으로 돌아와 이부자리를 펼치니 작자의 슬픔의 감성은 보다 더 극대화된다. 떠난 이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서러워하니 창자는 있으나 빈 것만 같고 얼굴은 있으나 항상 눈물이 가득하다며 죽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며 길게 탄식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슬픔과 그리움의 정서가 원망의 형태로 표출이 되었으나 방에 이부자리를 펼치고 홀로 서니 곳곳에 남아있는 남편의 흔적으로 인해 남편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지고 이로 인해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이 몰려오는 것이다.

작자는 자신이 비록 어질지 못하고 덕이 없으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별다른 악행이 없었으며 양가 부모님 또한 어질게 살며 덕행을 쌓았으니 마땅히 그 자손이 창성할 일인데도 자신에게 이러한 화가 닥치게 되니 착한 사람에게 복을 주는 이치를 알지 못하겠다며 탄식을 늘어놓는다.

넷설움 새설움과 있던 病 업던 病이  
 時時로 發作하니 心間의 불이 난다

작자는 옛 설움과 새 설움, 있던 병과 없던 병이 시시로 발작하니 마음에 불이 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는 작자의 내면 상태를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행장에서 묘사되는 남원 윤씨의 모습을 살펴보면 윤씨는 남편의 상을 당했음에도 재봉하고 염습하고 입관하는 등의 장사지내는 등의 절차를 친히 하고 후사를 잇는 일과 살림살이하는 법을 친히 지휘하였으며, 애통해하는 친정아버지를 오히려 위로해 보내는 등 주위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명도자탄사> 내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서술들을 보았을 때, 윤씨의 내면은 이미 슬픔의 감정에 깊게 잠겨 있었으며, 이로 인해 마음의 병과 몸의 병이 생겨날 정도로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이 컸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슬픔과 그리움의 정서를 한탄과 탄식의 형태로 드러내던 작자는 마침내 죽음을 결심하는데 이러한 모습이 작품 내에서 드러나고 있다.

何日의 도라오며 何時의 相逢홀고  
 憤하다 長繩長을 무어시 쁘잔 말고  
 梳頭洗面 全發하니 形骸는 土木이오  
 滄桑을 것거오니 心腸은 鐵石일다  
 寒衣飢食 다하면서 皮骨相連 무슴일고

작자는 ‘長繩長’을 언급하며 이를 쓰지 못해 분하다는 어조를 내비친다. 여기서 ‘長繩長’은 긴 끈과 칼 등을 가리키며 이는 죽고자하는 의도를 언뜻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 작자는 머리 빗질과 세수를 전폐하였으니 몸과 뼈가 토목과 같고, 추울 때에 옷을 입고 배고프면 먹기를 다하여도 피골이 상연하다고 하였다. 이는 작자가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슬픔의 감정이 몸의 병으로 발전하여 겉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잠업시 혼자 누어 百感이 交中하여  
 生前身後 헛튼 일을 생각하니 어이 업다  
 形容이 憔悴하고 心神이 指向업다  
 火歔희 설움나고 우숨 歔희 눈물난다  
 松楸를 바라보아 馳神而彷徨한다  
 北堂의 우리 偏親 明年이 回甲이라  
 우리루미 하늘이오 倚支흔배 泰山이라  
 坐臥의 寂寞히셔 생각나니 이몸이오  
 微恙이 즈즈시니 焦悶흔 下情이라  
 아들이 못된 후로 父母의 不關하다  
 年齒이 높흐시니 岷嶷의 빠른거슬  
 촌마 생각 못히어나 頭祝玉帝 ㅎ옵느니  
 北堂鶴髮을 紅顏兒齒히셔 萬壽無疆히샤  
 古人의 彩衣를 劾則히게 ㅎ옵쇼셔

잠 없이 홀로 누워 백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와중에 살았을 때와 죽은 뒤의 모든 일을 생각하던 작자는 자신의 서러움을 한탄하면서도 이내 북당에 홀로 계신 아버지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시점에서 이미 죽음을 결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죽음을 결심한 작자는 작품 내에서 자신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초민한 감정을 내비치고 있으며 아버지의 나이가 많아 걱정하면서도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시기를 옥황상제에게 축원하고 있다. 이는 자신이 떠난 뒤의 아버지의 평안을 걱정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작품 내에서 오랫동안 슬픔의 정서를 탄식의 형태로 표출하던 작자는 작품을 끝맺는 결사에 이르러서는 작품 내에 드러나는 슬픔의 정서를 함축적인 구절로 제시한다.

千行淚 滲滲하다 促禍酷罰을  
 南山竹 붓땀글고 北海水 떡ㄴ르셔  
 그리고 또 그린들 다 그릴 길 이슬소나

夜色을 다시 슬퍼 문닫고 드러 안자  
 孤燈을 相對호니 설운 모습 돌더 업서  
 黯然抑塞中 大綱을 記錄호나  
 文短筆拙호니 千分——일다  
 集字半句는 甚於痛哭이라.

작자는 축화혹벌을 남산의 대나무로 붓을 만들고 북해의 물로 먹을 갈아서 그리고 또 그린들 다 그릴 길이 있겠냐고 한탄한다. 또한 자신의 글이 짧고 글씨를 잘 못 쓰니 글로 써내려 간 것은 천분의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며 척자반구는 심어통곡이라는 말로 글을 마친다.

자신에게 닥친 축화혹벌에 대하여 남산죽으로 붓을 만들고 북해수로 먹을 갈아서 그리고 또 그린들 다 그릴 길이 있겠냐는 표현은 꽤나 충격적이다. 이는 작품 내에서 끊임없이 쏟아내던 슬픔의 정서가 그리고 또 그러도 다 그릴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말하는 바와 같기 때문이다. 글이 짧고 글씨를 못 쓰기에 글로 써내려 간 것은 천분의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구절 또한 마찬가지이다. 작품 내에서 차마 외면하려 해도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휘몰아치던 슬픔의 정서가 실제 마음의 천분의 일에 지나지 못한다는 말을 통해 작자의 슬픔이 그 어느 누구보다 컸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명도자탄사>는 남편을 잃은 윤씨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죽음으로 향하는 과정을 그대로 드러낸 가사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윤씨는 남편이 죽은 뒤에 따라서 죽었기에 순절을 한 열녀로 칭송받았다. 그러나 <명도자탄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윤씨의 행동에서는 열행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명도자탄사>와 함께 절명가사의 한 종류로 분류된 <절명사>의 경우 작자인 전의 이씨가 ‘名節’이라는 말로 자신이 죽음이 지닌 사회적 명분을 작품 내에서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전의 이씨가 <절명사> 내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명분을 제시한 부분이다.<sup>10)</sup>

天地 初半時의 이 몸을 삼기기는 名節을 내미로다  
滄浪의 뭍은 물결이여 倫生하던 怨을 꽤히 시스리로다  
사라 百年이 혼 풀곳 이실이요  
죽어 傳히기는 千秋萬歲에 泯滅치 아일디라  
하늘이 날을 내고 名節을 불히시미로다

이와 같이 <절명사> 내에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명분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약간의 비장미마저 느껴진다. 그러나 <명도자탄사> 내에서는 비장미보다는 슬픔의 정서가 작품의 전반을 뒤덮고 있고 이러한 열행에 대한 의지는 어디에서도 내비치지 않는다.

<명도자탄사>의 경우 남원 윤씨의 열행을 칭송하는 행장과 함께 묶여져서 전승되었기에 오랫동안 열녀의 노래로 알려지고 연구되어 왔다. 다만 <명도자탄사> 내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적극적인 감정 표현을 보았을 때 윤씨를 주입된 유교적 이념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죽음을 택하게 된 여성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때문에 최근의 연구에서 남원 윤씨는 ‘단순히 유교적 이념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수동적으로 열행을 선택하기만 한 인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개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윤씨를 적극적인 개인으로 본다면 윤씨라는 인물을 여성에게 순절을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죽음이라는 길을 택한 열녀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거침없이 토로하는 <명도자탄사>의 내용에서 시대적인 압박에 떠밀려서 죽음을 택한 순종적인 여성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유교적 이념관에 사로잡혀 적극적으로 열행을 수행하고자 하려는 의도로 보는 것 또한 옳지 않아 보인다. <명도자탄사> 내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던 작자가 이와는 대조적으로 작품 내에서 열행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

10) 박경주, 앞의 논문.

그러므로 <명도자탄사>의 작품 자체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후대인들의 유교적 이념에 의해 덧붙여진 행장을 떼어놓고 작품 그 자체만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열행에 대한 유교적 이념과 가치관 없이 <명도자탄사>라는 작품만을 바라본다면 작자의 죽음에 대한 원인은 비교적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작자가 자신의 내면의식을 작품 내에 여과 없이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명도자탄사>내에 드러나는 슬픔과 상실의 감정을 이해한다면 윤씨의 죽음에 대한 원인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해될 것이다. 윤씨는 남편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상실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남편을 따라 죽은 것이다. 윤씨는 남편을 따라 죽음을 결심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열행에 대한 언급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아버지의 평안을 걱정하는 부분에서는 죽음에 대한 변명의 의도마저 엿보인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윤씨의 죽음은 순절이 아니라 자살이며, 남편을 따라 죽어 절개를 지키고자 한 열행이 아니라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그와 함께 죽음의 길을 선택한 비극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3. 남원 윤씨의 죽음을 이해하는 태도

앞서 2장에서 <명도자탄사>에 드러나는 슬픔과 탄식의 모습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명도자탄사>에서 드러나는 탄식의 경우 기존의 열녀전에서 드러나는 탄식이 아니며, 같은 절명가사로 분류된 <절명사>와도 그 결이 다르다. <명도자탄사> 내에 드러나는 탄식은 신변잡기적 탄식과도 다르며 유교적 이념에 의해 순절을 강요받는 여인의 탄식과도 다르다. <명도자탄사> 속의 탄식은 보다 더 감정적이며 슬픔과 그리움의 정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명도자탄사>를 바라보는 기존의 관점은 조선시대의 열녀를 바라보는 전

형적인 관점이었다. 때문에 작품의 작자인 윤씨는 시대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죽음의 운명에 내몰린 인물로 이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명도자탄사>의 내용을 통하여 이해해보았을 때, 남편 윤씨의 죽음은 시대 상황에 의한 수동적인 죽음이 아니라 윤씨의 의지로 행한 주체적인 죽음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윤씨의 죽음이 열녀로서의 정절을 지키고자하는 결의에 가득 찬 죽음이었냐고 하면 이 또한 역시 아니다. 윤씨는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엄청난 슬픔과 상실감을 경험하였고 이러한 슬픔과 그리움의 정서를 견디다 못해 남편을 따라 죽음이라는 길을 택한 것이다. 이러한 죽음에 비장미는 전혀 드러나지 않으며 한마디 글에 천분의 일도 다 담지 못하는 슬픔의 정서만이 가득할 뿐이다.

윤씨의 죽음을 이해하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해왔다. 초기 <명도자탄사>와 함께 알려진 윤씨의 죽음은 정절을 지키기 위해 택한 비장한 열녀의 죽음이었다. 이는 윤씨가 죽음을 택했던 시대의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윤씨가 죽음을 택했던 18-19세기는 여성들의 열행을 보다 강도 높게 장려하던 시대였다. 때문에 남편 윤씨의 남편 한진구의 집안에서는 집안의 열행을 진작시키고 가문을 선양하기 위하여 『애중용』이라는 책을 엮어냈다.<sup>11)</sup> <명도자탄사>는 윤씨의 행장과 유서 아홉 편과 함께 『애중용』에 수록되었고 때문에 계속해서 열녀의 가사로 이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비교적 후대에 이를 때까지도 계속되었다. 이는 작품의 발굴 과정에서 <명도자탄사>가 계속해서 『애중용』에 수록되어 있는 형태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뤄진 결과이다. 현재까지 발굴되어 전하는 <명도자탄사>의 이본은 모두 2편으로, 이상보가 발굴·소개한 시가 당숙 후계본 『애중용』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과 진동혁이 발굴·소개한 친가후손본 『애중용』에 수록되어 있

11) 길진숙, 앞의 논문, 45~46쪽.

는 작품 2종이다. 두 작품 모두 윤씨의 행장과 함께 수록되어 있었기에 작품의 분석 과정에서 행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윤씨의 죽음이 다른 형태로 이해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최근 연구의 경우 윤씨의 죽음을 행장에 적힌 내용을 바탕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명도자탄사> 내의 비탄과 슬픔, 탄식의 어조를 통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윤씨의 죽음, 즉 유교 이념의 실천 의지는 사회적 압력 때문이 아니라 남편에 대한 상실의 정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더라도 윤씨의 죽음에서 사회적인 배경이 온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통념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조선 시대 남편의 죽음은 부인에게 슬픔 그 이상의 큰 괴로움을 안겨준다. 남편 없이 홀로 살아야 하는 운명이 남겨진 여성에게는 큰 어려움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남편 윤씨의 죽음은 온전히 남편의 죽음에 대한 슬픔으로만 인하여 촉발된 것이 아니라 남편 없이 홀로 남겨진 운명에 대한 좌절과 그로 인한 도피의 형태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윤씨의 죽음을 이해한다면 윤씨의 자결은 결국 본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시대의 압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런데 윤씨를 둘러싼 일련의 상황들을 살펴보았을 때, 과연 윤씨의 죽음이 시대적 압박에 의한 죽음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난다.

윤씨의 가계와 생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윤씨는 무남독녀로 태어났으며, 그의 부친인 윤상흠이 때마침 연기군수가 되어 윤씨를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다.<sup>12)</sup> 이후 남편 한진구의 병보를 듣고 남편을 간호하기 위해 돌아오기는 했으나 여성인 윤씨가 친정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타지로 동행을 했다는 것은 조선시대 여성상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특이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여성은 시집을 가면 출가외인이라고 생각되어 친가에서 잊혀지거

12) 윤행업, 앞의책, 316쪽.

나 교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윤씨는 시집을 갔음에도 친가와 교류를 이어나갔으며, 심지어 연기군수가 된 부친이 그를 데리고 가기까지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규방가사의 작자들과는 다르게 경기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한 윤씨의 경우 규방에 간혀 지내는 폐쇄적인 삶이 아닌 보다 개방적인 삶을 살았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이 행장에 그대로 적혀있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윤씨의 이러한 행보는 여성으로서 규범을 벗어난 특이한 모습이 아닌, 일상적이며 특이하지 않은, 여성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애중용』에 덧붙여진 행장은 윤씨를 열녀로서 추대하기 위하여 유교적 이념이 반영된 관점에서 쓰인 것이다. 때문에 윤씨의 행보가 유교적 이념이나 사회적인 규범에 맞지 않았다면 의도적으로 생략되거나 숨겨졌을 것이다. 그러나 행장에서는 윤씨가 아버지인 윤상흠과 교류한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평가나 침언도 없이 객관적인 시선으로 서술하고 있다. 행장을 쓴 이의 관점에서 윤씨의 이러한 행보는 어떠한 평가를 내려야할 당위조차 찾을 수 없는 평범한 일상사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윤씨가 살았던 18-19세기의 경기지방의 풍토는 여성의 열행을 강요하고 유교적 이념을 근거로 여성의 삶을 압박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성 또한 친정과의 교류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으며, 이것이 사회적인 규범에 벗어나는 것이라며 지탄을 받지도 않았다.

때문에 윤씨가 사회적인 압박에 의해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였다는 관점은 윤씨가 활동하던 경기지방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남편 없이 홀로 살아야하는 운명에 대한 도피라는 관점 또한 윤씨의 상황과는 맞지 않다. 윤씨는 서울에서 태어나 한진구에게 시집을 왔기 때문에 얼핏 남편의 죽음 이후에 연고지도 아닌 곳에 홀로 남겨진 여성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윤씨는 18살에 시집을 와서 34살까지 죽음을 택할 때까지 무려 16년을 시가에서 살았다. 윤씨의 나이를 보았을 때 반평생을 시가에서 산 것인데

이때의 시가는 남편의 집이 아닌 윤씨의 집이 된지 오래였을 것이다.

또한 윤씨는 시가와 사이가 아주 좋은 편이었다. 시아버지가 홀아비로 병이 많았으나 윤씨는 이를 받들어 섬기는 것을 기꺼워하며 효성을 지극히 하고, 시아버지의 상을 당하자 초종지절과 죽은 이를 섬기는 예를 한결같이 산 사람 섬기는 것 같이 하여 집안 친족들이 모두 효부로 칭하였다는 서술<sup>13)</sup>을 통해 보았을 때 윤씨는 집안 어른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며 친족들 내에서도 명망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씨 또한 시가를 자신의 친정과 같이 가족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윤씨는 자결을 하면서 <명도자탄사>와 함께 주위의 인물들에게 9통의 유서를 남겼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아버지께 올린 영결의 글
- ② 어머니께 올린 글
- ③ 아우<sup>14)</sup> 귀손(龜孫)에게 남긴 글
- ④ 형님께 영결하는 글
- ⑤ 시댁 당숙께 올리는 글
- ⑥ 진사 숙주께 올리는 글(본가 당숙)
- ⑦ 유모에게 남긴 유서
- ⑧ 점열(点烈)에게 주는 유서
- ⑨ 점열 소비(点烈 小婢)에게 준 유서

윤씨는 친가의 가족뿐만 아니라 시가의 가족들에게도 유서를 남겼다. 윤씨는 형님에게 남기는 글에서 자신의 재산 처분을 유언에 따라서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시댁 당숙에게 올리는 글에서는 본가 당숙과 상의하여 자신의 장례 절차를 조속히 진행시켜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13) 윤행임, 앞의책, 316쪽.

14) 윤씨가 무남독녀로 태어났다는 서술을 보았을 때 아우 귀손은 대를 잇기 위하여 친척집에서 들인 양자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윤씨의 태도를 보았을 때, 윤씨는 친가와 시가의 구분 없이 주위 친족들을 모두 같은 가족으로 여긴 것으로 보이며, 시가와외의 사이 또한 화목했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모두 종합해본다면, 윤씨의 죽음은 남편 없이 홀로 남겨진 운명에 대한 좌절과 그로 인한 도피도, 시대의 압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 또한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윤씨의 죽음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윤씨라는 인물의 삶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시 <명도자탄사>의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명도자탄사>는 후대의 평가나 사실이 들어가지 않은, 윤씨의 목소리 자체가 사실적으로 절절하게 표현된 문학이기 때문이다.

<명도자탄사>의 내용을 보면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슬픔과 박복한 부부의 운명에 대한 탄식, 그로 인한 절망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보았을 때, 윤씨의 죽음은 시대적 상황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으로서의 상실과 좌절로 인해 온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윤씨와 윤씨의 남편 한진구는 결혼생활 16년 동안을 자식도 없이 서로만을 의지하며 살아왔다. 때문에 윤씨가 남편을 잃고 좌절을 겪었다면 그것은 봉건 사회에서 가장을 잃게 된 여성의 좌절이 아니라 자신이 반평생<sup>15)</sup>을 걸쳐 사랑했던 이를 잃게 된 상실에서 오는 좌절일 것이다.

때문에 윤씨의 죽음은 유교적인 이념이나 사회적인 상황에 의한 좌절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롯이 자신의 반쪽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대한 슬픔과 좌절로 인해 비롯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15) 윤씨 집안은 대대로 벼슬을 지낸 명문가이나, 한씨의 집안은 6대조를 거슬러 올라가야 벼슬을 한 조상을 찾을 수 있으며 가문, 가세, 재산 등 무엇 하나 윤씨 집안에 건주기가 어려운 집안이다. 그럼에도 윤상흠이 한씨 집안에 무남독녀 딸을 시집보냈다는 것을 보았을 때, 두 사람의 결혼은 단순히 가문과의 결합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두 사람은 결혼 이전부터 서로 교류를 해왔으며 반평생 이상의 시간을 함께 보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4. 맺음말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명도자탄사>에서 드러나는 윤씨의 모습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조선 후기 여성의 모습과는 다른 경향성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여성은 봉건사회라는 틀에 갇혀 자신의 능력을 전부 펼치지 못하고 규방이라는 한정된 공간 내에서만 활동하는 억압된 존재였다. 그러나 <명도자탄사>를 통해 본 18-19세기 경기 지방 여성의 생활은 마냥 봉건사회라는 현실의 불합리에 억울해하고 규방이라는 공간에서만 갇혀 살았던 삶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명도자탄사>를 통해 윤씨는 사실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으며, 사회 현실에 억압받고 불만을 드러내던 규방가사의 모습에서 벗어나 보다 주체적인 자기표현을 드러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명도자탄사>라는 작품 하나만을 보고 이 시기 경기 지방 여성들의 모든 면모를 살펴볼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명도자탄사>는 당대에 많은 이들에게 향유되었기에 현실과 완벽하게 동떨어진 작품이라고 단언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명도자탄사>의 경우 이본은 2종 밖에 발견되지 않지만 한씨가에서 남원 윤씨의 열행 사실을 기록하여 책으로 간직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실을 널리 선양하기 위하여 그 지방의 향교, 군아, 관영 등 여러 곳으로 이를 보낸 것으로 보이며 이 또한 많은 수의 이본이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이와 같은 작품에 드러나는 경기지방 여성의 모습은 다분히 현실적인 형태에 가까울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규방가사라는 갈래 형태가 여성가사를 분석하고 여성담론을 이해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음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규방가사에 대한 정의가 '영남지방 일대에서 주로 유행하였던, 규방이라는 공간 내에서 여성담론을 다루고 있는 가사.'라는 좁은 의미로 한정되면서 여성가사를 이해함에 있어

서 너무 정형화된 형태를 만들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조선 후기, 특히 18-19세기로 넘어가면서 이러한 정형성을 벗어난 작품들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여성가사는 이전의 규방가사라는 좁은 의미로 규정되던 정형성을 탈피하고 좀 더 넓은 의미로서의 여성가사로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이전 시기의 여성가사는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남편에 대한 원망과 독수 공방의 한을 그리거나(규원가), 정절의 모습을 지키기 위하여 고뇌하는(절명사) 모습으로 사회적인 제약 속에서 고통 받는 여성의 모습이 주된 소재였다면 18-19세기 여성가사에서 여성은 좀 더 자신의 내면의식을 주체적으로 표현하거나 사실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중세의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 보다 근대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여성가사의 출현과 더불어 18-19세기 문학인 <명도자탄사>의 분석 또한 보다 더 근대적인 면모로 연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자료

한국가사문학 DB(<http://www.gasa.go.kr/>)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 DB

### 2. 논저

권영철, 『규방가사연구』, 이우출판사, 1980.

길진숙, 「<명도자탄사>의 내면의식과 자탄적 술회」, 『한국말글학』 제18집, 한국말글학회, 2001.

김경미, 「열녀전을 통해 본 전통 부부 윤리의 문제」, 동양한문학회연구 제16집, 동양한문학회, 2002.

나정순,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 : 유명씨 작품을 중심으로』, 역락, 2002.

박경주, 「18세기 절명가사에 나타난 사대부가 여성의 순절의식 연구:『절명사』와 『명도자탄사』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제128호, 2001.

(UCI: G704-000019.2001.128.005)

성호경, 『한국 시가의 형식』, 새문사, 1999.

———, 『한국 고전시가 총론』, 태학사, 2016.

오종각, 「<명도자탄사>의 형태와 내용고찰」, 『도술어문』 제2집, 단국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986.

윤병용, 「남원 윤씨의 유서와 <명도자탄사>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40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20.

(DOI: 10.17090/kcwls.2020.40.201)

윤행임, 『대방세가언행록 : 국문번역』, 성동문화, 1993.

이상보, 「명도자탄사 소고」, 『명지어문학』 8호, 명지어문학회, 1976.

진동희, 「공인 남원윤씨의 「명도자탄사」 연구」, 『국어국문학』 91호, 국어국문학회, 198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조선시대의 열녀 담론』, 월인, 2002.

| Abstract |

## The gasa of grief and grief at the loss of one's husband, <Myungdojatansa>

Park, Eun-bin  
Chonnam Univ. Ph.D

The <Myungdojatansa> is a gasa, which is inherited with haengjang(行狀) that eulogize Ms. Namwon Yoon's chastity, And it is known and researched as the literature of virtuous woman over the time.

However, in the matter of <Myungdojatansa>, regarding Ms. Yoon as a virtuous woman is not a good perspective. <Myungdojatansa> was written with her thought and emotion without restraint. It's hard to find the obedient woman who chose her death in extensive pressure in her era. Therefore, delineating Ms. Yoon as woman who had no choice but to choose her death by her Confucian ideology is not reasonable.

Furthermore, interpreting her behavior as the intent attitude to keep her chastity based on Confucian ideals is an inadequate perspective. In <Myungdojatansa>, the narrator her expresses every feeling without reserve, but she showed no will to keep, her chastity.

To elucidate <Myungdojatansa>, it should be interpreted by itself, not shed light on descents' Confucian ideals. The <Myungdojatansa> should be explicated gasa itself, without any Confucian background of chastity.

Sympathizing the groan and bereavement in <Myungdojatansa>, the reason of Ms. Yoon's death is transparent. Ms. Yoon did not choose her

death to keep her chastity or by the pressure of historical background. As Ms. Yoon felt limitless sorrow and loss, she took her life after her husband passed away.

Ms. Yoon's death is not a self-immolation for her chastity, Ms. Yoon took a suicide which she chose after her husband death.

**Key words** : Myungdojatansa, Namwon Yoon, feminine gasa, Gyeonggi gasa